

자고나면 뛰는 집값 무주택 서민 '한숨'

광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부동산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주택 공급정책 다변화 필요...도심 재개발로 임대아파트 늘려야

■1. 직장인 박모(47)씨는 지난 10월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전용면적 121㎡의 한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지난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만난 집주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집 판결 후회한다"고 했다. 불과 1개월 새 이 아파트 다른 동의 가격은 1500만원이나 상승해 매매됐다.

■2. 결혼을 앞둔 최모(34)씨는 지난 9월 남구 봉선동 전용면적 80㎡의 한 아파트를 눈여겨 봤다. 지은 지 20년 가량 돼 더 이상 가격상승이 안될 것으로 판단한 최씨는 2개월 정도 자금을 마련한 뒤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최씨는 그새 1000만 더 오른 아파트 가격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이단 아파트값 상승에 광주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103%)보다 높은 103.2%다. 주택 자가소유 비율 역시 58.92%로 6대 광역시 가운데 2번째다.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가주택 비중도 52.3%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내 집을 소유한 가구가 많고, 집을 사는 기간도 짧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전국 건축물 동수·연면적'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 비중은 72.8%에 이른다. 집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은 아파트인 셈이다. 전국 평균이 60.6%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 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내 집'으로 아파트를 유독 선호하는 광주시민들에게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광주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지난 10월

78.5%로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 행진을 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80%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라인 1층의 매매가보다 기준층의 전세가가 더 높은 사례까지 발생했다.

주택구입가격이나 전세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뉜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PIR(price to income ratio) 지표를 살펴보면 광주의 소득대비 전세가 배율은 3분기 기준 2.2배에 달한다.

매매가격 상승폭은 더하다. KB국민은행의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는 올 초부터 10월까지 2.51%나 올랐다. 지난해에도 아파트값이 2.6%나 올랐는데 올해 역시 비슷한 상승세다. 소득대비 주택가 PIR은 4.3배로 올랐다. 가구 소득의 4배 이상을 쥐어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엔 2.3배였다.

한 부동산 통계기관 관계자는 "광주의 전세가나 매매가격 상승폭이 너무 빨라 실제 통계를 작성하면 본사에서 전국 평균을 위해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 수준이 크게 오르지 않는 광주의 특성상 지속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광주도시개발공사 등 기관들이 노후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들 구입에 임대아파트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도심 개발을 위해서라도 100가구 미만의 단지를 재개발 하는 것도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훈기자exian@kwangju.co.kr



불 밝힌 문화전당 앞 성탄트리 7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 대형 성탄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이날 밤 '2014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온누리에 평화와 사랑이 퍼지기를 기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 모습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주요 강사



조혜련 임홍길 김동호 박경철 조윤범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기 원생 모집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모집합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63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고품격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30분(호떡식사 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12월 ~ 2015년 2월
- 합격차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2부 4위→1부 승적 '광주FC의 기적'

경남과 승강PO 합계 4-2 승리
3년 만에 K리그 클래식 복귀

시민구단 광주 FC가 3년 만에 프로축구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에 복귀한다.

〈관련기사 3·20면〉

광주FC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14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1차전에서 3-1로 승리한 광주는 1, 2차전 합계 4-2로 경남을 따돌리고 내년 시즌을 K리그 클래식에 활약하게 됐다.

광주는 2012년 16개 팀 가운데 15위에 그쳐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됐다. 지난해 챌린지 3위에 머물면서 1부 리

그 복귀에 실패했다.

광주는 올해도 챌린지에서 4위에 그쳤지만 준플레이오프에서 3위 강원 FC, 플레이오프에서 2위 안산 경찰청,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경남을 차례로 물리치고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하게 됐다.

남기일 광주 FC 감독은 "뒤편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선수들에게 고맙다. 광주는 축구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지로 진입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광주가 어떤 축구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승적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해맞이 축제

2015 회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해맞이 축제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여는 건강의 섬 완도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일출을 감상하며 새해 소망과 희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행사명	2015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해맞이 축제
일시	2015. 1. 1(목) 06:00 ~ 08:00
장소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일원(완도타워)
내용	공연행사 : 풍물패 길놀이, 희망의 목소리 참여행사 : 신년덕담, 소망성취 연·풍선 날리기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